원주 "1승 남았다"

삼성 90-77 꺾고 3승1패
프로농구 男 챔프4 차전

원주 동부가 2007-2008 SK텔레콤 T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코앞에 뒀다.

동부는 23일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챔피언 결정 4차전에서 지치지 않는 장신센터 김주성과 레지 오코사의 종횡무진 활약에 이광재의 중거리포까지 힘을 보태 서울 삼성을 90-77로 쉽게 제압했다.

김주성은 25득점에 리바운드 8개를 잡아내며 기량이 절정에 올랐음을 보여줬다. 3승1패를 기록한 동부는 앞으로 1승만 더하면 정규리그 우승과 함께 통합 우승까지 휩쓸게 된다.

동부는 이상민, 강혁을 앞세운 삼성의 속공에 초반 접전을 벌였지만 1쿼터에서 26-23으로 앞서간 뒤 2쿼터에서 확실한 주도권을 잡았다. 삼성은 2쿼터에 이상민, 강혁이 골밑을 파고 들어 연결하는 패스가 동부의 수비에 막히면서 테렌스 레더의 1대1 돌파를 이용한 골밑 공격에만 의존했다. 레더는 3차전에서 34점을 몰아치고 리바운드 12개를 잡아내 삼성의 반격 기회를 살린 주역. 레더는 2쿼터에만 12점을 몰아 넣었지만 동부는 개의치 않고 삼성과 격차를 벌려 나갔다.

2쿼터 5분33초를 남기고 김주성이 자유투 2개를 넣은 것을 시작으로 이광재가 자유투를 포함해 연속 4점, 표명일이 연속 6득점, 오코사가 3점 플레이를 성공시키자 스코어는 순식간에 51-34가 돼 버렸다.

여기다 표명일이 잠시 벤치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사이 대신 나온 김진호가 3점슛까지 꽂아 넣고 이광재가 2점을 보태자 전반 스코어는 56-38, 동부의 완승 모드로 바뀌었다. 3쿼터가 끝날 때 동부는 75-62, 13점차 추격을 허용했지만 4쿼터 초반 이광재와 카를로스 딕슨의 3점포로 맞받아쳤다. 이후부터 나온 득점은 동부의 승리 축포였다. 김주성은 4분28초를 남기고 덩크로 림을 흔들었고 딕슨의 3점포, 오코사의 자유투 2개가 연속 들어가며 점수는90-70.

안준호 삼성 감독은 이상민과 강력을 벤치로 불러 들이면서 다음 경기에 대비했지만 기울어진 전세를 뒤집을 묘책이 없어 보였다.

23일 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07-2008 SK텔레콤 T 프로농구 챔피언결정 4차전 서울삼성 대 원주동부의 경기에서 동부 김주성이 삼성 이규섭을 앞에 두고 슛을 던지고 있다. /연합뉴스

첼시, 리버풀에 극적 무승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부자구단' 첼시가 리버풀과 치른 2007-200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대 자책골에 덕분에 극적으로 비겼다.

첼시는 23일(한국시간) 영국 리버풀 안필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원정에서 전반 43분 디르크 카윗에게 선제골을 내주며 패색이 짙었지만 후반 인저리타임 때 리버풀의 미드필더 욘 아르네 리세가 헤딩 자책골을 기록하면서 1-1 무승부를 거두고 기사회생했다.

이에 따라 원정에서 행운의 무승부를 기록한 첼시는 31일 2차전 홈 경기를 앞두고 결승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리버풀은 전반 41분 카윗이 첼시의 미드필더 프랭크 램파드로부터 낚아챈 볼을 사비 알론소에게 밀어줬고, 알론소의 패스를 받은 하비에르 마스체라노가 페널티지역 부근에서 슛을 때렸다. 마스체라노의 발 끝을 떠난 볼은 첼시 수비수 클로드 마켈렐레를 살짝 넘어 카윗에게 이어졌고, 카윗은 멋진 선제골로 홈 팬들을 열광시켰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끝내 리버풀의 편을 들지 않았다. 후반 45분이 지나고 인저리타임에 들어간 첼시는 막판 공세를 펼치다 살로몬 칼루가 페널티지역 중앙에 도사리고 있던 니콜라 아넬카를 향해 왼쪽 코너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순간 리버풀의 리세가 몸을 날려 헤딩으로 볼을 거둬내려고 했지만 엉뚱하게 자기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으면서 다잡은 승리를 날렸다.

박지성 용인에 250억대 7층 빌딩 건설 중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 중인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경기도 용인에 7층짜리 빌딩을 건설하고 있다.

23일 용인시에 따르면 박지성의 매니지먼트사 'JS리미티드'는 최근 기흥구 영덕동 흥지택지개발지구에 250억원을 호가하는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건물 시공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갔다.

건물 이름은 '스타플라자'라고 지었으며 대지 면적은 1천200㎡ 가량이다. 향후 임대수익은 유소년축구 발전 및 박지성 부모의 노후 생활자금 등에 사용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체육회 갈등 심화
'올림픽 전력' 차질 우려

유장관·김회장 회동 취소

사무총장 인선 문제로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마지막 타협의 기회마저 놓쳐버렸다.

유인촌 문화부장관과 김정길 체육회장은 24일 시내 모 호텔에서 처음으로 오찬 회동을 갖고 체육계의 현안들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문화부는 23일 오전 체육회에 "장관께서 다른 급한 일이 생겼다"며 약속을 취소했다.

지난 해 체육인재육성재단과 공공기관 운영법 등으로 각을 세웠던 양 기구는 최근 체육회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추대한 구안숙 사무총장 내정자를 문화부가 승인 거부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상태다.

이에 문화부는 지난 17일 최종학 체육국장이 김정길 회장을 방문해 유인촌 장관과의 오찬 회동을 주선하며 화해의 손길을 보내 양 기구 수장의 회동 결과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22일 밤 언론을 통해 김정길 회장이 자신의 거취마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구안숙 사무총장을 재임명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접한 문화부는 23일 오전 장시간 회의 끝에 '일단은 체육회장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겠다'고 방침을 정한 뒤 회동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장관과 체육회장의 회동 무산은 '장관의 다른 용무'라는 표면적인 이유와 달리 "지금은 만날 때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실무진들은 전했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사퇴도 심각하게 고민중"이라고 밝힌 김정길 회장은 장관과의 회동마저 무산됨에 따라 25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중대 결심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 김정길 회장이 정부와의 갈등으로 인해 자진 사퇴한다면 한국은 베이징올림픽 개막을 불과 100여일 앞두고 체육회장과 사무총장이 모두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메달 전선은 물론 스포츠 외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베이징올림픽 성화 27일 서울 도착

베이징올림픽 메인스타디움 '궈자티위창(國家體育場)'을 밝히게 될 성화가 올림픽 개막 100여일을 앞두고 서울에 온다.

고대 올림픽 발상지인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돼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온 성화는 27일 오전 1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하루 전 일본을 거치고, 28일에는 북한 평양 시내 봉송으로 이어진다.

서울 시내 봉송은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시청 앞 서울광장 사이 24㎞구간에 이른다.

봉송행사는 오후 2시 평화의 광장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린다. 주자들의 이름과 봉송 경로는 안전상의 문제로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광장 도착 예상시간은 오후 7시. 마지막 주자가 7천여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서울광장 무대에 설치된 성화대에 불을 옮겨붙이고 나면 리빙화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에게 성화봉송도시 증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일정이 완료된다.

성화는 다시 인천국제공항으로 옮겨지고 서해 직항로를 거쳐 28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으로 향할 전망이다.

스포츠중계

24일 (목)

▲2008 메이저리그〈뉴욕Y : 시카고W〉(09 : 00·XPORTS)

▲2008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요코하마〉(17 : 45·SBS스포츠)

▲2008 프로야구 〈SK : 롯데〉(18 : 20·X-PORTS), 〈두산 : 삼성〉(21 : 00·SBS스포츠), 〈우리 : 기아〉(18 : 00·KBS N S-PORTS)

▲2008 SBS코리안투어 토마토 저축은행 오픈 1R(14 : 10·SBS골프)

25일 (금)

▲2008 LPGA 스탠포드 인터내셔널 프로암 1R(03 : 00·SBS골프)

▲07/08 UEFA컵 4강 1차전〈바이레른뮌헨 : 제니트〉(03 : 30·MBC ESPN)

▲2008 PGA EDS 바이런넬슨 챔피언십 1R(04 : 00·SBS스포츠), (05 : 00·SBS골프)